

맛따라 맛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9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빛과 예술의 조화... 광주 문화관광 1번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는 문화와 예술의 혼이 숨쉬는 도시다. 광주의 과거와 현재 예술의 정수를 맛 볼 수 있는 곳은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일대 '중외 문화예술벨트'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영산강 고대문화를 대표하는 마한문화재와 한반도 농경문화의 시원을 알려주는 광주 신창동 유적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 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 등 총집결 남도의 '어제와 오늘' 만날수 있는 곳

국립광주박물관=1978년 문을 연 이래 올해로 개관 30년주년을 맞는 국립광주박물관은 찬란한 광주·전남의 유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1847~1916), 정운면(1906~1948) 등의 작품 24점이 선보이고 있다.

광주시립 민속박물관=광주 전남 지역의 다채롭고도 풍부한 민속문화와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중흥산성 쌍사자석등(국보 103호), 화순 대곡리 출토 청동유물 11점(국보 143호), 나주 신촌리 고분출토 금동관(국보 제295호) 등이 대표적인 유물이다.

정지장군환상(鄭地將軍環衫·보물 제336호)을 만날 수 있다. '정지장군환상'은 고려말에 활약했던 정지(1347~1391) 장군의 갑옷으로 철관과 수많은 철제 고리를 엮어 만든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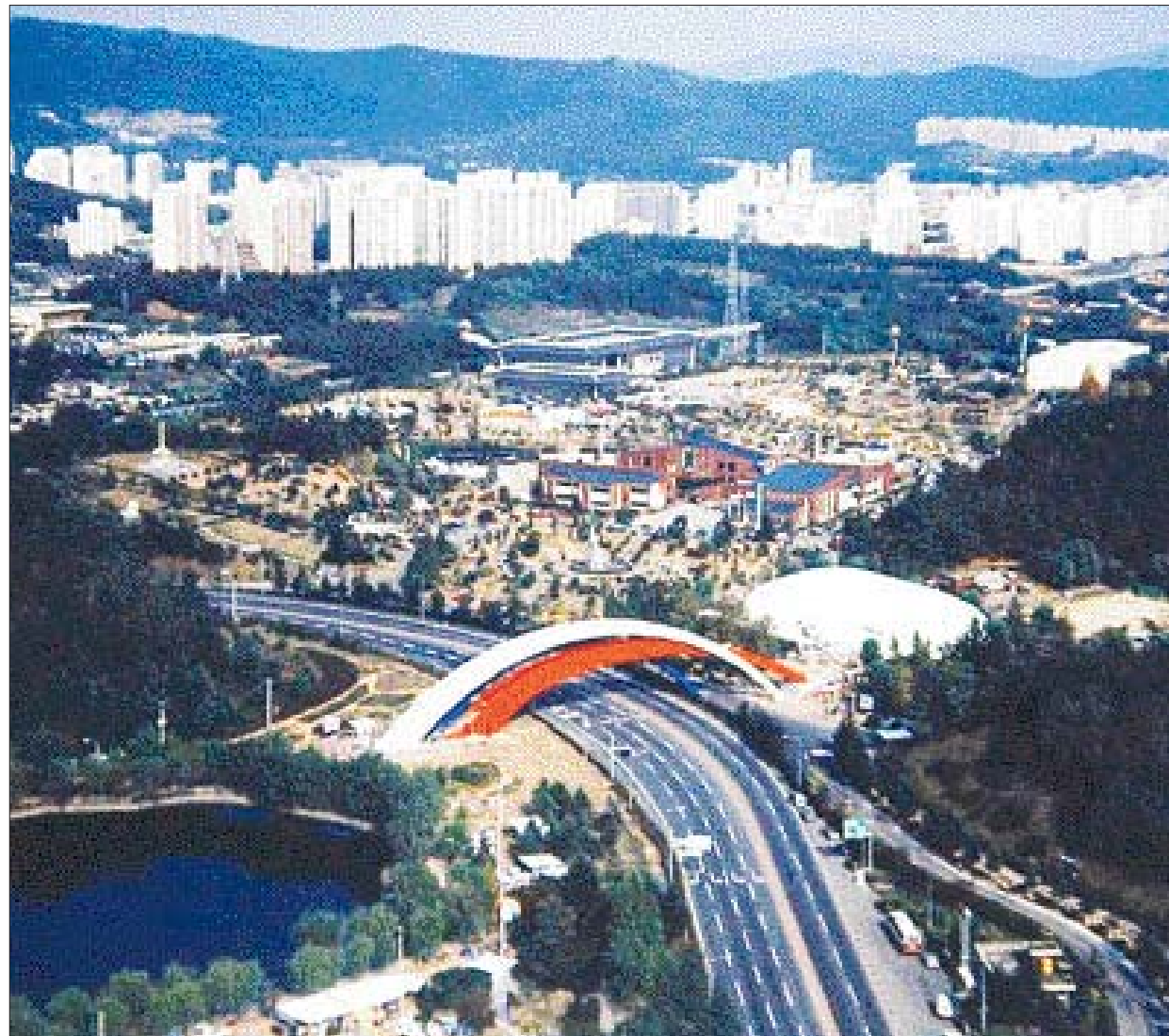
선사시절에 전남 지방에서 출토된 구석기 시대~초기 철기시대까지의 유물을 볼 수 있다.

아외전시장은 100여점의 민속자료와 시칠물 등이 배치돼 있다. 불레방 앓간과 연자방앓간, 태실을 비롯해 각종 전통 공간들이 조성돼 있다.

아외에 전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유적은 순천, 보성, 화순 등지에서 출토된 청동기 시대 고인돌들이다. 또 고려청자의 비밀을 간직한 강진 대구면 운운리 가마도 복원, 전시되고 있다.

광주시 문화재인 심신사지 석불(유형문화재 2호)과 석비(유형문화재 제3호)도 전시돼 있다. 지난 1996년 발굴된 광주 읍성성곽도 복원·전시되고 있으며, 그네뛰기 등 민속놀이 시설과 모형, 숲

현재 서화실에서는 '호남의 그림과 글씨'라는 주제로 조선시대에 화명(畫名)을 크게 떨쳤던 윤두서(1668~1715) 일가, 남종화의 맥을 이어온 허련(1808~1893) 일가, 그리고 송수면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인 광주시립미술관, 민속박물관, 비엔날레 전시관, 문화예술회관 등 주요 문화시설이 자리하고 있는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일대 '중외 문화예술벨트'.

그늘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의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한국화, 서양화, 관화 등 모두 2천738점의 방대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92년 개관한 뒤 광주문화예술회관에 동지를 틀었으나 지난해 10월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으로 신축 이전했다. 전시실 6곳을 포함해 도예실·창작실·자료실·수장고·아트숍 등 국제적 수준의 전시장과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올 상반기 상설전시 2개의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오는 7월 6일까지 본관 5전시실에서는 하정웅플렉스 '이국자' 전이, 6전시실에서는 소장작품전

'내 안의 정물'이 각각 선보이고 있다.

'이국자' 전에서는 1931년 교토에서 태어나 오사카 모더니즘아카데미를 졸업, 제일동포 화가 전화환에게 배운 이국자씨의 회화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내안의 정물' 전에는 임직순·강연균·구자승·손수광·나건과·김준호·최강희·김재수·전화환·남관·고형훈·김구림·최광자·박동신·윤병락·박병주·부페 등 17명의 작품 28점이 선보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세계 현대 미술의 최신 경향을 한 곳에 볼 수 있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66일간 동안 현대미술의 축제인 2008 광주비엔날레가 열려 세

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 없는 전시'라는 파격적인 형식을 도입한 이번 비엔날레는 '연례보고(Annual Report)'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길위에서(On The Road)', '제안(Position Papers)', '끼워넣기(Insertions)' 등 3개 섹션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첫 번째 섹션 '길 위에서'는 2007~2008년 사이에 세계 곳곳에서 소개된 미술, 영상, 퍼포먼스 등의 작품 30여점이 선보이며 문화적 교류와 만남의 공간을 제공한다.

두 번째 섹션 '제안'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유럽 및 북미 지역 등의 큐레이터 8명이 현대미술의 미래 경향을 소개하는 전시로 구성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빛과 어우러진 새로운 명소가 될 중외 문화예술벨트 일대 공공건축물의 그래픽 이미지. 위로부터 문화예술회관, 민속박물관, 비엔날레 전시관.

야간에 '빛의 명소'

문예회관·비엔날레 전시관 등 내년 9월까지 야간 조명 설치

광주의 중외 문화예술벨트 일대가 화려한 야간 경관 조명을 자랑하는 명물로 탈바꿈한다.

광주시는 '빛의 도시'를 부각하고 새로운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 광주문화예술회관, 비엔날레전시관, 민속박물관 등 중외 문화예술벨트 주변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야간 경관 조명 설치작업을 시행한다.

모두 1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시는 이를 위해 오는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먼저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문화예술의 중심지를 상징하는 대극장 처마의 기품을 살리고, 빛의 흐름처럼 자연미를 강조하는 조명 시스템이 설치된다.

대극장 정면은 빛이 기둥을 타고 흐르는 듯한 분위기 연출함으로써 건물의 웅장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광장 조형물과 잔디에 놓여있는 설치미술, 소나무 군락 등도 주변과 조화되도록 아름다운 빛으로 포장된다.

'비엔날레전시관'은 광주 비엔날레 등 연중 각종 문화행사 열림에 따라 이에 걸 맞는 야간조명이 설치된다. 건물 중앙 통로의 필로티(건축물 지층부의 열린 공간) 부분을 살리되 주간 경관을 고려, 자극적인 조명을 자제함으로써 외부 오픈스페이스 빛의 조형물과 조화되도록 방침이다.

전통가옥을 형상화한 '시립민속박물관'은 이미지에 걸맞게 회색빛 처마를 조명으로 살려 무겁고 어두운 색상의 기와 지붕과 대비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전면 기둥은 지중조명을 설치하는 등 전통가옥으로써의 위용을 살림과 아울러 주변의 크고 작은 소나무를 조화롭게 연출하여 전통적인 정원 이미지로 형상화 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안전한 광주·행복한 시민 세계 일류국가 가는 길 교통질서가 첫걸음

관심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광내영교육학 개강 3월 7일(금) 현재 상당 접수중!